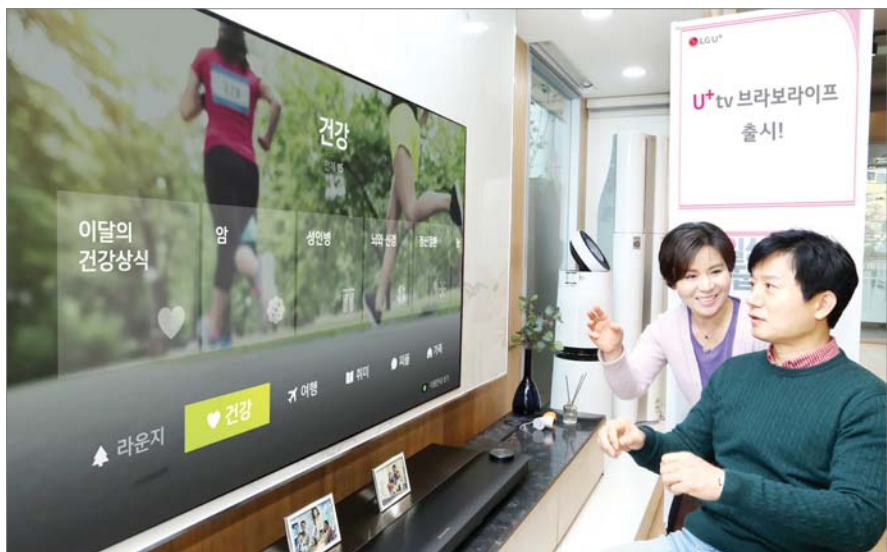


LG U+ “이통사 아냐... 전 세대 망라 콘텐츠 미디어사”

시니어 위한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 출시

키즈, 2030, 4050세대까지
IPTV 세대별 라인업 완성

건강정보 ‘우리집 주치의’ 등
자체제작 영상 158편 서비스



모델들이 ‘U+tv 브라보라이프’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은퇴 이후 50대 이상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유아용 콘텐츠 ‘아이들나라’, 10대 ‘아이들라이브’, 2030 세대를 위한 ‘넷플릭스’ 제휴에 이어 세대별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건강에서 취미, 여행까지 50대 이상 세대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고 편하게 즐기는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 이견영 홈미디어상품담당 상무는 “은퇴 이후

에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건강, 여행, 취미 등 6가지 영역의 구성을 통해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진행한 50~60대 대상 고객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55세

서 54세 베이비부머의 인구 비중은 15.5%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은 은퇴 이후에도 배우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등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시니어를 위한 콘텐츠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LG유플러스의 U+tv 브라보라이프는

50대 이상 고객 특화 자체 제작 영상 158편을 탑재해 무료로 제공한다. 기존 TV 콘텐츠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

LG유플러스 측은 “콘텐츠 제작자라기 보다는 기존에 없던 새 시장을 개척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통해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 세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출연해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우리집 주치의’ 90편을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 제작했다. 우리집 주치의는 서울대학교 전문의와 40분간 관심 질병의 필수 정보에 대해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는 건강 전문 프로그램이다.

창업 노하우를 담은 ‘나의 두 번째 직업’ 9편·고급 스마트폰 활용법 영상 22편과 자연 풍경과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영상 32편을 자체 제작했다.

서비스 화면은 전체적으로 눈이 편안

한 녹색을 사용했다. 또 기존 서비스 대비 글씨가 30% 커졌고, 직관적 아이콘과 이미지를 활용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부터 유아층을 타깃으로 ‘아이들나라’를 선보인 데 이어 2030세대를 위한 ‘넷플릭스’ 독점 제휴를 한 바 있다. 이번 브라보라이프 출시를 통해 키즈, 2030, 4050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별 라인업을 완성한 셈이다.

이견영 상무는 “아이들나라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도 같이 타깃을 하는 만큼 브라보라이프는 그 연장선상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며 “재미, 교육 등 여러 콘텐츠 측면에서 IPTV 서비스가 경쟁사와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tv 브라보라이프는 기존 U+tv 이용자는 별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UHD2 셋톱 이용 고객 125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KT, 국내 최초 5G백본망에 메시구조 적용 배터리·ECC·태양광, 화학업계 ‘3대 미래먹거리’

트래픽 전송 지연 대폭 감소



KT직원들이 5G 백본망에 메시 구조를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있다.

KT

KT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5G 백본망에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메시(Mesh) 구조를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5G에서는 통털에불투선(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20기가비피에스(Gbps)의 전송속도와 10분의 1의 지연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5G의 요구사항에 맞춰 대용량 트래픽을 초저지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역간 트래픽 전달 시 발생하는 백본망에서의 지연을 줄여야 한다.

KT는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5G 백본망에 메시 구조를 적용하고, 지역 간 트래픽 전송 지연을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기존 유무선 통신의 백본망에는 트래픽 처리 구조 상 지역 간 트래픽 처리 시 반드시 수도권 센터를 경유해야만 해 전송지연이 발생했다. KT가 5G 백본망에 적용한 메시 구조는 전국 주요 지역센터끼리 직접 연결하는 그물형 구조다. 이를 적용

하면 전국의 주요 지역 센터 간 직접 연결 경로가 생성돼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산과 광주 간 트래픽 처리 시 수도권을 경유하는 구조의 기존 백본망에서는 약 16ms 전송지연이 발생했지만, 메시 구조의 5G 백본망에서는 약 6ms의 전송지연으로 최대 63%까지 지연 시간이 줄어든다.

지역센터 간 연결 경로도 다양해진다. 특정 구간 장애 발생 시에도 다양한 대체 경로 확보가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LG화학, 車 배터리 수주량 증가세 롯데케미칼, 美ECC공장 가동 눈앞 한화케미칼, 태양광시장 성장 수혜

국내 화학사들이 배터리와 ECC(에탄크래커) 및 태양광에서 사업을 키워가면서 급격한 불황을 맞은 기초소재부문 사업을 대체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학업계 3사로 꼽히는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케미칼이 각각 배터리와 에탄크래커, 태양광 사업을 필두로 올해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LG화학은 기초소재부문에서 수요가 위축된 반면, 자동차 배터리 부문에서 BEP(손익분기점)을 달성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LG화학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선정, 수년간 연구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에 규모있는 투자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LG화학은 지난 4분기에서 배터리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호영 LG화학 사장은 “무역 전쟁 등에 따른 수요 위축, 여수 NCC공장 정기 보수 영향으로 기초소재부문 이익 규모가 축소됐다”면서도 “배터리 부문에서는

분기 매출 첫 2조원을 돌파, 그 중 자동차 배터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차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자 LG화학의 배터리 수주량도 덩달아 급증, 그 결과 LG화학의 지난해 전지부문 매출은 사상 최고치(6조5196억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조96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33%나 감소한 수치다.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시황 악화 및 유가 등락에 따른 구매 관망세 지속, 전반적인 수요약세 우려감 등으로 주요 자회사들(롯데첨단소재·롯데케미칼타이탄)의 수익성이 감소했다.

올해 롯데케미칼은 상반기에 본격 가동되는 미국 ECC 공장 및 말레이시아 타이탄 증설 물량 효과 등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만 5년을 거친 미국 ECC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연 100만톤의 에틸렌과 70만톤의 에틸렌 글리콜(EG)이 생산된다. 이로써 롯데케미칼은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450만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게 돼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이 ECC 가동

으로 연간 추가적으로 1조원 규모 매출과 20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올해 태양광시장 성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0년에 태양광사업에 처음 진출, 태양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꾸준히 키워왔다.

올해 특히 태양광사업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보조금 정책 변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우호적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화케미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시장의 2019년 신규 설치량은 지난해보다 20%~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화케미칼은 미국에 1.7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장은 올해 1분기 안에 상업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공장이 가동되면 한화케미칼은 태양광 셀에 이어 모듈시장에서도 글로벌 생산량 1위에 오르게 된다.

또 2020년부터 미국에서 신규 태양광 발전소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발전소 건설도 올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KT, 영업이익 1조2615억... 전년비 8% ↓

유·무선사업 매출 감소 큰 영향
아현지사 화재도 4분기 반영돼



하락했다. 지난해 무선사업 매출은 선택약정할인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KT가 무선 매출의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여파도 작용했다.

KT는 신 회계기준(K-IFRS 1115호)을 적용해 지난해 매출 23조4601억원, 영업이익 1조2615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0.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8.3% 줄었다. 인건비 증가와 무선 매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요금감면 비용이 4·4분기에 모두 반영되며 실적 부진을 초래했다.

실제 4·4분기의 매출은 5조9945억원을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고, 영업이익은 95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8.4%

확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 줄어든 7조40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무선 가입자는 고객 맞춤형 신규 요금제의 호응으로 같은 기간 5.5% 늘어난 2112만명을 기록했다. 일반이동통신(MNO) 순증 규모는 9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이 가운데 휴대전화 가입자 순증은 14만명이었다.

유선사업 매출도 4조7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금융사업 매출도 전년 대비 2.4% 줄어든 3조444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미디어·콘텐츠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조4492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방어를 했다.

/김나인 기자

제주항공, 창사 이후 첫 年매출 1조 돌파

지난해 영업이익 1012억 기록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 2594억원, 영업이익 1012억원의 실적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709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매출액은 전년(9964억원) 대비 26.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0.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 등 비용 증가 요인에도 지난해 4분기에도 54억원의 이익을 내 2017년 수준을 유지하며 연간 기준 2011년부터 8년 연속, 분기 기준 2014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제주항공은 역대 최고 매출 달성의 요

인으로 ▲기단 확대(8대 순증)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신규 취항 등 시장 점유율 확대 ▲에어캐피 등 부가매출 증가 ▲내국인 최대 출국 수요지인 일본과 동남아시아 노선에 대해 거점 다변화 등 유연한 노선 운용으로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주항공의 노선은 2017년 45개에서 2018년 67개로 늘었으며, 부가매출은 같은 기간 789억원에서 988억원으로 25% 신장했다. 제주항공은 또한 급격한 유가 상승에도 기단을 지속 확대해 정비비와 리스료 등 주요 고정비용의 효율적인 분산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갖춰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양성문 기자 ysw@